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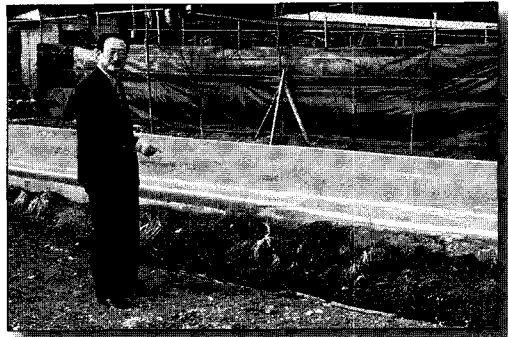
농민 가슴 퍼렇게 만든 '빨간마후라'

- 비행도중 연료통 떨어져, "피해 보상? 이것만 받든가 말든가" -

지난 2000년 10월4일 오전 9시49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에서는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인근 식품 하역장에서 작업하던 직원들은 엄청난 굉음에 놀라 차 밑으로 몸을 피신시켰고 지역 주민들은 차마 문밖을 나가 볼 엄두도 못내며 이유도 모르는 난리에 한참을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들을 것처럼 떨게했던 공포의 근원은 바로 비행기 연료통.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F4-E 팬텀기(조종사 김태성대위)가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사고 현장 인근 상공에서 연료탱크 이상으로 외부 연료보조 탱크 두 개를 떨군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연료통 두 개는 배추밭과 묘목을 심어 놓은 곳으로 떨어져 농경지에 기름이 유출됐을뿐 인명 피해는 없었다. 또한 민가나 사업장에 직접 떨어진 것도 아니어서 별다른 재산상의 피해도 없어 보였다.



▲ 사고현장을 가르키는 민병철시장. 농장과와의 거리는 불과 10여m

죽어가는 사슴들

그러나 이 사고의 불똥은 인근 사슴농장으로 튀었다. 연료통이 떨어진 배추밭과 장학사슴농장(대표 민병철)과의 거리는 불과 10여m. 유난히 소음에 약한 야생동물인 사슴은 코앞에서 발생한 엄청난 굉음을 이겨 낼 제간이 없었다. 소음에 놀란 사슴은 여기저기 피신하려고 마구 뛰어다녔고 이 과정에서 축사에 부딪치며 열상을 입은 사슴들이 생겨났다. 또한 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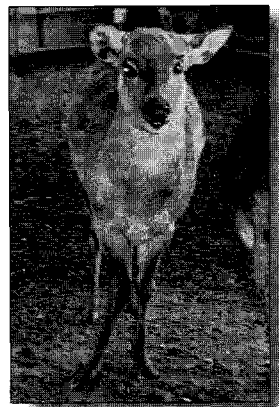
▲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사된 사슴

고 부딪치는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슴도 발생했다.

그날 사고 이후 장학사슴농장의 거의 모든 사슴들에게서는 식욕절폐현상이 나타났고 시간이 많이 흐른 현재까지도 식욕절폐현상은 이어지고 있으며 당시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던 암사슴들에게서는 때아닌 늦발정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고 이후 열상 치료를 받던 꽃사슴 암컷 1마리와 재발정이 온 숫사슴에게 치인 암컷 1마리는 이미 폐사되었고 당시 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암사슴 한 마리는 지난 4월 3일 끝내 도태 처리됐다.

사고의 심각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종족으로 애지중지하던 엘크 수컷은 습식거부, 식욕절폐현상으로 울 녹용 생산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록 생산을 위해 준비했던 엘크 암컷들도 재발정이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그

날의 사고로 낙태가 된 것이 확실시된다. 설사 제때 자록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암사슴에게서 태어난 자록의 건강 및 능력을 장담할 수도 없



▲ 사고의 충격으로 다리가 골절된 사슴

는 노릇이다. 꽃사슴도 마찬가지로 사고 당시 외형상으론 이상이 없었으나 발정지연으로 3월말에 투쟁을 벌이고 승가를 실시하니 이를 보는 민병철씨의 마음은 걱정을 넘어 허탈감이 밀려왔다.

알뜰한 사고처리에 멍드는 농심

사건 발생 후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는



▲ 다리골절로 기브스를 실시한 사슴

군법무관과 수의사를 긴급히 파견, 민병 칠씨 농장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치료비와 함께 임신으로 추정되는 꽃사슴 6마리, 엘크 2마리의 자육 값 변상 등 총 피해 보상액으로 9백65만원을 제시했다. 만족스러운 금액은 아니었으나 사슴의 안전 유무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민병칠씨는 그들이 제시한 보상액을 수락했고 사슴의 치료에만 몰두했다. 그러나 피해상황은 민병칠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청주종합동물병원의 고철환수의사와 함께 밤낮으로 치료에 매달렸지만 끝내 꽃사슴 암컷 2마리는 폐사하고 말았다.

다리가 부러진 사슴은 깁스를 했지만 호전되는 기미는 없어 보였다. 많은 사슴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습식거부로 나날이 기운을 잃어 갔다. 사슴에게 들어가는 치료비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렇다고 치료를 중단할 수도 없는 노릇.

하루하루 치료에 몰두하고 있던 어느 날 사고를 일으킨 공군부대로부터 뜻하지 않은 연락이 왔다. 그들이 처음에 제시했던 9백65만원의 피해 보상액은 지급할 수 없으며 고철환 수의사의 진료비 2백20만원 중 1백6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일방적

인 통보였다. 이에 민병칠씨는 약속 불이행과 함께 일방적으로 결정된 보상액에 대해 즉각 항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제고의 여지가 없음을 밝히고 '이것만 받고 마무리 짓던지 만족치 못할 경우 재판을 걸어 더 받아가라'라는 식의 배짱으로 일관했다. 그들의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사슴 치료에만 전념하던 민병칠씨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

제멋대로 결정된 피해 보상

공군 17전투비행단은 사고 후 빠른 사고 처리를 위해 9백65만원의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공군은 피해자를 참석시키지 않은 '그들만의 회'를 통해 1백60만원의 피해 보상액을 결정, 일방 통보했다.

그들은 최초 사고 후 낙태가 예상됐던 꽃사슴 자육 6마리와 엘크 자육 2마리에 대한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밀실회의를 거쳐 수태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상을 거부했다. 또한 암사슴 한 마리가 치료 도중 폐사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는 수의사 고철환씨의 치료 과정 중 일어난 실수라며 책임을 전가, 명예훼손의 위험수위까지 넘나드는 곡예를 선보이며 보상을 거부했다.

사슴 치료비 부문에 대해서도 실질적 치료비 1백45만원은 인정하지만 5번의 왕진료는 모두 인정하기 힘들다며 단 1회 왕진료인 1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총 치료비 2백20만원 중 1백60만원만 보상한

다는 일방적 결론을 내렸다.

이쯤되다보니 민병철씨도 사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없는 노릇이 됐다. 1백60만원의 보상금이라면 그 동안 민병철씨가 개인적으로 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상은커녕 오히려 금전적 손해만 입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병철씨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피해자는 참석시키지도 않고 양록업 비전문가인 공군 관계자만 모인 가운데 일방적으로 보상액을 결정, 통보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민병철씨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법의 공정함에 호소하기로 결정했다.



▲자가치료에 사용된 약품 및 기구

유사사고 재발방지위해 좋은 선례 남겨져야

재판을 결심한 민병철씨는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출기 위해 자료 수집에 나섰다. 그러나 소음에 의한 피해사례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더욱이 비행도중 연료통을 떨궈 사슴이 피해를 입는 해괴망칙한 사건은 있을리 만무했다. 그나마 소음에 의한 피해사례나 피해금액 산출 방법도 소나

돼지 등 주요축종에 국한돼 있어 자료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양록분야에 있어 가장 비슷한 사건으로 공사현장 소음에 의한 피해사례가 있었지만 공사현장의 소음 수준과 하늘에서 내려 꽂은 연료통 소음과는 격이 달랐다.

이에 민병철씨는 사슴 전문 의사 및 각 대학의 전문 교수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논문 및 연구자료, 피해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폐사 및 부상당한 사슴의 피해와 치료비를 포함 ▲녹용 생산량 저하 예상, ▲종록의 자육 가격 저하 예상, ▲암사슴 유산, 조산, 사산 등 영향 예상, ▲스트레스 받은 사슴의 후유증 예상 등 향후 발생될 피해까지 총 4천3백만원의 피해 금액이 산출됐다. 민병철씨는 이 금액과 현재까지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종 자료가 수집되고 피해 금액이 산출됐다고 바로 재판을 신청,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재판을 진행할 사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축산 전문 변호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기간에 끝날 사건은 아니다. 또한 빠른시간안에 대충 마무리되어서도 안된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 문제이지만 이 사건의 결과는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제2, 제3의 유사 사건에 선례로 남기 때문이다. 사건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양록**

〈취재/손성훈 기자〉